

김용민브리핑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속살!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크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박근혜 갱생은 옥살이부터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즉 박근혜 측 변호인이 밝힌 말입니다. 그날 침몰로 참사는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장수의 말 그대로이네요.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랬었죠?

이 논리, 과연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바다를 다니는 배가 가라앉을 때에 청해진해운 같은 선사에 대해 서만 원망을 하며 비명 중에 익사해야 합니다. 국가의 구조 따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의 변명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도 무자격자 박근혜의 실상에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저성과자, 무능력자는 이쑤시개 공장 노동자라도 쫓아내게 하는 이른바 노동개혁. 이 노동개혁을 밀어붙인 박근혜. 본인의 무능은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모든 인식의 기반에는 말로는 민주주의, 말로는 국민을 운운 하지만,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는 착각이 도사려 있습니다. 어디 감히 검사, 국회의원 따위가 청와대를 수색한다고 하는 거야부터 어디 감히 저 하찮은 놈들과 똑같은 변기에서 변을 볼 수 있겠어까지 그는 과거부터, 여전히, 앞으로도 스스로 왕이라는 인식의 테두리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미용사가 없어서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로, 마약 없이 밤을 지새우며, 본인 손으로 빨래를 해서 말려도 보고, TV도 하루 두 시간 이상 못 보며, 칸막이 없는 화장실에서 남이 써온 변기를 쓰고, 전국 모든 재소자와 동일하게 1식 3찬의 밥을 먹게 해야 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범죄 의혹이 모두 인정된다면 전제로, 10년에서 20년 동안 말입니다.

아직 이 나라의 헌법적 정체성을 모르는 겨울왕국의 공주에게 민주공화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8차 촛불이 오늘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있습니다. 주권자의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7일(토) 1부 | "특검, 뇌물죄 집중 판다..한재 2월 결론 가능"

[오프닝] 변명 100% 믿는다면 박근혜는 해고대상 저성과자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사법부 불법사찰' 하나만으로도 탄핵감·특검 들여다보기로
- 김진태 덕에 '박근혜 유죄', 김기춘 덕에 '박근혜 탄핵' 더 쉬워져
- 김영재, '4.16 거짓말' 하나둘씩 드러나·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 원장질 황교안, '세월호 수사 방해'도 특검 조사 받을 듯
- 최동석 칼질!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 경영학 박사
- 악의 삼각판데 해체해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원혼은 둘 아니야
- [김프로이드] 김프로 전 SBS 기자, 팟캐스트 기획자
- SBS 보도 새 길 찾나·특검의 박근혜 수사 이 방향으로 간다

■ 17일(토) 2부 | [관혼나이트클럽] 정상근 혁명동지, 전주에서 풀다

- [출연] 민동기 미디어평론가, 정동지 미디어오늘 기자
- "정윤희 아들 MBC 특혜는 방송판 정유라 사건"
 - JTBC 시청자 선호도, 2위 KBS 차이가 무려...
 - '그 분' 생존설에 전주 갔다가 생명 위협 느껴 귀환한 심악한 정동지

트랙 ① 특별검사

박영수 특검, 대법원장 사찰도 조사

‘사법부 불법사찰’ 문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통해 폭로됐지? 야당이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사찰 자체도 엄청난 불법이지만 행정부가 사법부 요인의 뒷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헌정 파괴 행위다. 당연히 이 자체로서도 탄핵감이다. 점잖은 말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했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겨레 “황교안 세월호 수사 방해도 조사”

완장질로 나날이 즐거운 황교안 이야기다.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더니 공공기관 인사도 하겠다는 거 아닌가. 한편 한겨레가 어제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의 실상을 고발했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황교안은 이 뿐 아니다. ‘정윤희 문건유출 사건’ 당시 ‘정윤희의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죄도 조사받을 상황이다.

트랙 ② 헌법재판소

세계일보 김진태 김기춘에 감사해야 할 野

친박인 김진태와 ‘국민 귀태’ 김기춘 때문에 박근혜가 낭패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김진태가 주도해서 형사소송법을 안 바꿨다면 정호성의 녹취파일은 법정 증거가 안 된다.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한 부장판사는 “정호성 파일은 증거 가치가 매우 높다”면서 “현재가 이 녹취파일을 증거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심판의 향방이 의외로 쉽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기춘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의원으로 소추 위원이었는데 재판관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자,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은 촛불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판단을 할 경우, 즉 탄핵 반대를 할 경우,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다.

트랙 ③ 국회

한국일보 김영재, 눈속임은 둔재였나

어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개인병원인 김영재 의원을 찾아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에게 성형시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영재다. 당일 오전 장모를 치료했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런데 장모를 치료했다는 그날 진료기록부가 조작됐다는 평가다. 일단 서명의 필체, 필기구 색깔이 다르고, 장모의 진료기록부에 얼굴시술 기록도 있고, 장모가 오전에 진료를 받은 전례가 드물다는 점이다. 결국 장모에 대해 진료를 하지 않고도 자기 해명에 맞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민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4월 16일 아침 김영재, 당신은 뭐했나, 야당 의원들이 추궁할 태세다.

중앙일보 고영태 “청문회도 짜고 친 화투”

증거인멸 시도, 이것만으로도 구속감이다. 최순실의 동업자였던 고영태 씨가 월간중앙과 11시간에 걸쳐 단독 인터뷰를 했다. 고영태 씨는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4차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박 전 과장에게 “최씨와 일하며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최씨가 아닌) 고씨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 한번은 태블릿PC 충전기를 구해 오라고도 했다”고 했다. 실제 그렇게 됐고, 한편 2014년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 김무성과 서청원이 격돌한 이 전당대회에서 최순실은 “서청원을 밀어야 한다”고 박근혜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순실이 존댓말을 썼지만 내용은 지시에 가까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중앙일보 “교수님들, 여기서 뺨 치시면...”

이틀 전 청문회에 나온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답변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의원들이 집요하게 캐물었지만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을 비롯한 인사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 그러나 팩트는 어떨까. 중앙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교육부 감사 결과는 ▶학장이 입학처장에게 정유라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입학처장이 이를 총장에게 보고했고 ▶입학처장이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정유라를 선발케 했다는 것이다. 또 학장이 교수들에게 '정유라를 신경 써라, 관리 잘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리발을 내밀자 교육부 김태현 감사총괄담당관이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압력이 있었다는 관련 진술을 다 받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거짓말 들통 대처 매뉴얼 있다

청문회에 나온 핵심 증인들의 거짓말과 교묘한 말 바꾸기를 분석한 건데.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시종일관 "모른다" "그런 적 없다"며 발뺌하다가 특위 위원들이 동영상이나 공문 등의 증거를 내밀면 재빨리 말을 바꾸는 식이다. 최순실 모른다던 김기춘, 서창석과 통화 안 했다면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 안했다던 김영재 의사, 이대생 농성 때 경찰투입 요청 안 했다면 최경희 총장,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 드러난 경우다. 그래서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지금까지 위증 혐의가 제기된 모든 증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 일정이 없는 날은 관저에만 머물렀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겨레 어떤 어민들의 '저도의 추억'

한겨레는 박근혜에게 '저도의 추억'이 있는 저도를 주목했다. 박정희·박근혜에게 '그립고 정든 섬'이 되는 동안 어민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악몽' 같은 삶이 있었다. 대통령 별장 만든다며 선산이 있는 사람들까지 내 쫓았다. 섬진강에서 모래 실어와 해변에 깔고 막내아들 지만을 위해 매미를 잡아다가 방사했다고 한다. 강제로 퇴거된 주민들은 대통령이 오셨을 때 저도에서 조업했다가는 개맞듯 맞는 일이 빈번했고 심지어 사격도 당했다고.

대동하야지도

12월 15일~ (12/16(금) 09시 기준 /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15일(목) 19시
구월동 로데오입구

17일(토) 17시
광화문광장

17일(토) 19시
구리역 광장

18일(일) 19시
롯데시네마 광장(매주 금)

19일(월) 19시
금오동 홈플러스(종로중의원사무실)

20일(화) 18시
아파트 앞(매주 목)

21일(수) 19시
동백호수공원

22일(목) 19시
경기상가사거리 음식점 '연마당'

23일(금) 19시
부천 마루광장(매주 수)

24일(토) 18:30
평택역(매주 수)

25일(일) 19:00
항남 홈플러스

17일(토) 17시
충북도청 앞 도로

17일(토) 17시
도담동 상상센터 광장

17일(토) 17시
둔산동 타임월드 앞 (시청방향)

17일(토) 17시
전북도민 총회기

17일(토) 17시
전주 관동로 사거리

17일(토) 17시
영동동 하나은행 앞

18일(일) 18시 30분
농협군지부 앞 중앙로

18일(일) 18시
금남로

17일(토) 17시
정보과학고 사거리

18일(일) 18시
국민은행 앞

18일(일) 18시
평화광장

17일(토) 17시
종이동 23호광장

18일(일) 18시 30분
볼우공원

18일(일) 18시
군정 앞

17일(토) 17시 30분
볼우공원

18일(일) 18시
강연아트홀광장

18일(일) 18시
칠마리광장

18일(일) 18시
군정사거리

18일(일) 18시
읍광우은행

18일(일) 18시
대호동 수변공원

17일(토) 17시
안동

17일(토) 17시 30분
빙그레 공원

17일(토) 17시 30분
군민광장

18일(일) 18시
보성역 광장

17일(토) 17시 30분
구 동경면사무소

18일(일) 18시
읍 성당 앞

18일(일) 18시 30분
장성역

18일(일) 18시
삼호읍 주공 1차 앞

18일(일) 18시 30분
국민은행 사거리

17일(토) 17시
경상

17일(토) 17시
경주시청

18일(일) 18시 30분
1호광장

15일(목) 18시 30분
사파대방

18일(일) 18시 30분
삼계사거리

17일(토) 17시
진주성 앞

17일(토) 17시
이마트후문

17일(토) 17시
고현 현대사거리

17일(토) 17시 30분
영남루계단

18일(일) 18시 30분
합천축협 앞

17일(토) 17시 30분
남해읍 사거리

19일(월) 19시
창녕 석빙고 앞

18일(일) 18시 30분
2호 분수광장

15일(목) 19시
웅남동

16일(금) 18시 30분
창동 상상길

17일(토) 17시
시민의중 건넌편광장

17일(토) 17시
삼천포 종합운동장 입구

16일(금) 17시
군정 앞

17일(토) 17시
군정 앞

16일(금) 18시 30분
삼정 앞

17일(토) 17시
문화원 광장

18일(일) 18시 30분
하동

16일(금) 18시 30분
삼지공원

16일(금) 18시 30분
동문 네거리

경남 만민공동회 18일(일) 16시, 창원시청 광장
경남사국대회 18일(일) 17시 30분, 창원시청 광장

부산 17일(토) 18시 서면

대구 17일(토) 17시 대경교통전용지구 (중앙파출소 앞)

울산 17일(토) 17시

제주 17일(토) 17시, 제주시청
18일(일) 18시 30분, 1호광장

홈페이지 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너에겐 추억 우리에게엔 악몽

경향신문

박근혜, MB보다 두 배 더 쉬어

경향신문 토요일판은 청와대, 한겨레 토요일판은 대통령 별장을 주목했다. 우선 경향신문. 경향신문이 박근혜와 이명박의 집권 2년차 한 해 공식 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박근혜의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 2배 이상 많았다. 사흘에 한 번꼴로 일정이 없었던 셈이다.